



두.언어의.무늬.맞추기

전설영, 한류가 아니라 한국문화를 번역하기 위하여

‘걸어다니는 어학교재’들, 이른바 외국인들과 막힘 없이 대화를 나누는 ‘네이티브 구사자’를 볼 때면 부러운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두 나라의 언어에 능숙한 ‘이중모국어 사용자’라면 더더욱. 제일 한국인 3세로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번역하는 전설영의 경우처럼. 인터뷰하는 사람보다 한국어 발음이 정확하다는 말에 인터뷰를 허락한 그녀를 만나, 이중모국어 사용자가 경험하는 번역에 대해 들어봤다.

글 차선아 본지 책임편집자 | 사진 박정훈

자막번역에서 더빙번역으로

그러고 보니 우리는 한류의 꽃인 배우들이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한류를 가능케한 ‘번역’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본 적은 거의 없다. 우리가 울고 웃는 그 대사들은 과연 어떻게 번역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고 어떻게 번역을 할까 등등. 그 궁금한 번역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전설영이다. 화제의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을 번역한 그녀는 현재 <여우야 뭐하니>를 번역하고 있으며, 한국으로 유학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 현대문학을 공부하는 중이기도 하다. 원래 전공은 조경학이었고, 번역하기 전까지는 조경전문지의 기자였다는 그녀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번역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평범한 직장인 생활이었는데, 2001년 그만뒀어요. 일단 좀 쉬고 하고 싶은 일을 다시 찾아보려고 했죠. 그리고 얼마 뒤 2002년 한일월드컵이 열렸고, 한국과 일본의 교류에 관련된 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니 영화번역을 하면 좋겠다는. 그래서 알음알음으로 영화배급사에 계신 분을 소개받았고, 영화 <정사>를 맡게 됐어요. 시작은 자막번역부터였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외국의 영화를 번역한다는 것은 ‘자막’이라는 제한된 조건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고된 작업이다. 대사를 시간 단위로 끊어서 그 속도에 글자수를 안배해야 하고, 관객이 다양한 만큼 누구나 한번에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야 하며, 그러면서도 원래 대사

가 주는 뉘앙스를 살려서 요약해내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번역도 처음이고, 자막은 더 모르니 고됐죠. 거의 독학하는 심정이었어요. 대수롭잖게 보여도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자막의 규칙이라서요. 1초에 네 글자, 한 장면에 열두 글자까지, 발음 표기 같은 맞춤법 등등을 따져가면서 1분짜리 대사를 적당히 끊는 식으로 하는 작업이죠. 다른 번역도 그렇지만 문맥을 제대로 읽고 이해해서 영화의 썸을 따라가는 리듬감과 센스가 필요하니까요. 자막번역은 최소 십 년은 꾸준히 해야 웬만큼 한다고 인정해주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작한 영화번역은 <킬러들의 수다>·<아는 여자>·<봄날의 꿈을 좋아하세요?>·<분신사바>·<그녀를 믿지 마세요>·<S다이아리>·<황산벌>·<빈집>·<활> 같은 최근 개봉작 중심의 대중적인 작품부터, <오발탄>·<공처가 삼대>·<김약국의 딸들>·<카인의 후예> 등 한국영화를 소개하는 기획전을 위한 작품까지 다양했다. 이렇게 한동안 영화를 번역하다보니 드디어 ‘연속극’ 즉 한국 드라마를 번역하게 됐다. 드라마 번역은 영화와는 달리 더빙을 전제로 한 작업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가을동화>·<이브의 모든 것>·<해피 투게더>·<내 이름은 김삼순> 등을 번역했고 앞서 언급했듯이 <여우야 뭐하니>를 작업하고 있다.

“사실 대사를 번역한다는 점은 같지만, 자막과 더빙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다른 작업이었어요. 물론 일본에서는 두 분야의 번역을 아예 분리해서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번역자도 서로 달라요. 게다가 한류 덕분에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청자가 늘어난 것도 분발의 원인 중 하나였어요. 내용이 약간 다르거나 실수로 틀리면 반응이 금세 돌아오는 것이 TV매체기도 하지만,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을 놓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만큼 책임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한국어를 이하는 시청자가 늘어나면서 번역 내용을 교정 봐주시는 분들의 전문성도 점점 높아지고, 기준 역시 예전보다 까다롭고 엄격해지는 추세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출판 편집자들이 교정교열을 보듯 영상물의 번역 내용을 고쳐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거든요. 한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그 부분에서 큰 차이가 느껴지죠. 아무래도 한류 이전에는 한국과 중국 영상물은 그리 인기가 높지 않아서 마이너에 속했으니까요.”

몰림이 아니라 선택한 언어

앞서 언급했듯이 전설영은 재일교포 3세고, 한국어에 능숙한 편이다. 하지만 번역은 차원이 다른 언어활동이기 때문에 결국 화제는 한국어에 대한 그녀의 이력으로 옮겨갔다. 얘기를 들어보니 어려서부터 한국어에 능숙했던 것은 아니었다.

“양쪽 조부모님과 부모님 모두 제일 한국인이시지만, 부모님의 경우 조선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뒤에 한국어를 따로 공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 조선학교를 선택했고요. 물론 실력이 나아진 것은 번역을 시작하면서부터죠. 아무래도 좀더 집중하게 되고 말의 정확함을 엄격히 따지게 되잖아요.”

본격적으로 영상번역을 하는 동안 ‘한류’가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한국문화에 대해 배워 보고 싶어졌다. 그중에서도 한국 현대문학으로, 결국 유학을 결심하고 연세대 대학원에 진학해서, 현재 한국 현대문학을 공부하며 한국 드라마를 번역하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를 번역하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문학에 관심을 두게 되고,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대학원 석사 2기를 지났고 식민지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한국문학, 그중에서도 소설을 주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영상번역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동안 관심을 둔 작가는 김승옥이었어요. <무진기행> 같은 작품은 소설도 좋지만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자신의 작품을 직접 시나리오로 각색한다거나 연출을 하는 활동을 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소설 작품을 시나리오로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게다가 자기 작품을 각색하려면 자기 객관성이 필요하잖아요. 그 외에도 영화 <유리>의 원작인 박상룡의 <죽음의 한 연구>도 좋아하는데 이 작품의 문체가 주는 리듬감이랄까 뉘앙스를 살려가면서 꼭 한번 번역해보고 싶기도 해요. 이렇게 영상과 문학 사이에 관심을 두는 것은 번역의 경험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고 영상과 관련된 분야만 보는 것은 아니고 박민규·정이현·김애란 같은 젊은 작가들의 작품도 좋아해요. 일본의 젊은 세대와 큰 차이 없이 받아들여지고 그 점에서 저 역시 이해하기 쉽고, 만약 일본에서 번역된다고 해도 독자들에게 읽히는 ‘시장성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고요. 사실 한류 이후에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감각으로 한국을 보기 시작했어요. 정치·역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에서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동시대성을 갖고 한국을 접하게 만드는가’하는 점이라고 봐요.”

번역자로서 한국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그녀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젊은 세대들이 서로 동시대의 문화를 접하고 나눌 수 있게 하는 ‘번역’이다.

“드라마나 영화가 주는 파급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한류라는 자체가 스타마케팅 중심으로 흐르잖아요. 이젠 한류 다음을 고민할 때라는 것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느낄 텐데, 시작은 이뤄졌으니 이제 다양한 문화를 좀더 진지하게 접하고 배우는 계기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젊은 소설가들을 일본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번역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공부를 마치고 한국어 실력이 더 향상된 다음이라는 전제에서 말이죠.”